

# 세계적 셰프들도 반한 '신안 1004굴' 해외 미식시장 공략

### 에잇·보르고 한남 등 고급 식당·호텔 20여 곳에 납품 홍콩 이어 마카오 등 수출 협의...아세안 진출 교두보 마련

신안의 '1004굴'이 세계적인 셰프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신안군은 1004굴이 현재 에잇, 라미피에, 보르고 한남 등의 파인다이닝(고급식당)은 물론 JW메리어트제주, 페어몬트 엠버서더 등과 같은 호텔 20곳 이상에 납품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또 해외로도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홍콩으로 1차 수출을 마친데 이어 마카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주요 시장과도 수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수출협회가 구체화되면 1004굴은 아세안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안군의 '1004굴' 양식산업은 민선 7기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득원 발굴을 목표로 추진, 민선 8기 들어 본격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범양식을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세척, 선별, 포장에 이르는 자동화 시스템을 자체 개발·제작해

노동력 감소 등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 1004로고를 패각 표면에 레이저 각인해 원산지 증명과 고급화 브랜드를 구축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 주도의 1004굴 양식산업 정착과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 자체 양식학교를 운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청년이 떠나지 않고, 나갔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높은 일자리와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야된다"면서 "1004굴의 ASC 국제인증과 패류 생산해역 지정 등 수출기반을 마련해 세계적인 명품 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비금 삼막 예술축제 때 개채국 주산국인 프랑스인에게 제공한 홍보용 1004굴. <신안군 제공>

## 완도군 내년 본예산 6214억 확정...229억 증가

### 사회복지 분야, 전체 23%...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추진

완도군은 2025년도 본예산 6214억원이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985억원 대비 229억원(3.8%)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5947억원으로 126억원(2.1%)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03억원(63.1%) 늘어난 267억원 규모다.

내년 예산은 군민 복지 증진과 민생경제 살리기 등에 집중하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 주요 관심 분야를 적극 반영했다고 완도군은 설명했다.

신규 사업은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의 23%인 1473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농림해양수산 1328억원(21%), 환경 806억원(13%), 공공행정 415억원(6%) 등의 순이다.

중소기업·산업 분야로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135억원) ▲청년 공공 임대주택 건립(65억원) ▲인중 부표 보급 지원사업(63억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50억원) ▲해안도로 관광 경관 명소화(43억원) ▲도서관 여객선 운임지원(42억원) ▲보길 급수 구역 비상 공급망 구축

(28억원) ▲노화·소년간 연도교 건설(20억원) 등이 반영됐다.

해양지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방문의 해 조형물 설치, 해변공원 가로수 조성 등 21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내년은 완도 방문의 해 선포식을 시작으로 국제 슬로시티 총회와 섬의 날 행사 등 연초부터 크고 작은 행사가 줄을 잇는다"며 "편성된 예산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집행해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디지털 영암군민증' 발급받으면 혜택 광광

### 농특산물 할인·지역축제·이벤트 정보 제공...요식·숙박 할인 등

'디지털 영암군민증'을 발급받으면 영암 농특산물 할인, 축제·이벤트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영암군은 최근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시행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한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이 아닌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늘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군은 제도 시행을 위해 군 홈페이지 '주요서비스' 항목에 '디지털 영암군민' 항목을 개설하고,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한다.

군은 디지털 영암군민에 신청을 하면 디지털 영암군민증을 발급한다.

또 영암물 농특산물 할인과 지역축제 및 이벤트

정보 제공, 요식·숙박 등 관련 가맹점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영암군민이 참여하는 '추억의 영암여행 사진 이벤트'를 시행한다.

참여 군민 중 추첨을 거쳐 영암군의 친환경 달마지쌀 5kg을 주는 이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고, 당첨 결과는 오는 30일 영암군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우승회 영암군수는 "디지털 영암군민제도로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영암군과 관계를 맺고, 찾아올 수 있게 하겠다"면서 "아름다운 생태와 숨겨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달빛생태도시의 디지털 군민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 해남군, 산이면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완공

### 주택 예정단지 인근 3.8ha 가시나무 등 1만 8000여주 식재



해남 솔라시도 '기후대응 도시숲'.

해남군은 산이면 솔라시도 주택 예정단지 인근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을 완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기후대응 도시숲은 미세먼지 발생원 및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총 3.8ha 규모이다.

도시숲에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가시나무, 비자나무, 이팝나무, 동백나무 등 키 큰 나무 21종 2870주와 병꽃나무, 다정큼나무 등 키 작은 나무 18종 1만 4820주를 다열·복층구조로 심어 밀도 높은 숲으로 조성했다.

특히 봄에는 왕벚나무 꽃길, 여름에는 풍성한 녹음길, 가을에는 목서 향기가 있는 길, 겨울에는 동백과 가시나무 상록수길로 조성해 사계절 특색 있는 숲의 모습을 갖추도록 했다.

또 1.7km에 걸쳐 황토와 마사토를 활용한 숲길을 도입해 누구나 건강한 산책이 가능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이 생활권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도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도시 숲은 일반 도심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는 25.6%, 초미세먼지(PM2.5)는 40.9% 낮아지고 1ha의 숲은 대기 중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연간 168kg 줄일 수 있다.

도시 숲이 있는 지역은 한여름 평균기온을 3-7℃가량 낮추고, 습도는 9-23% 올려 도심 열섬현

상도 완화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이 인근 주거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밀도있는 숲을 조성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탄소흡수원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직접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시숲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영광군, 월별 재난 행동 요령 달력 제작

### 12가지 재난 대처·예방 수칙 소개

영광군이 새해를 맞아 월별·시기별 재난 유형과 행동 요령을 담은 벽걸이용 안전 달력을 제작했다.

대설 산불 폭염 태풍 지진 화재 등 연중 발생빈도가 높은 12가지 재난 유형을 소개하고 각 달에는 대처 요령 및 예방 수칙이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제공됐다.

경로당, 어린이집 등 안전취약시설과 실과소, 읍·면 사무소에 부착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역사회 안전 문화 확산을 촉진하고, 군민들이 일상에서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재난 안전달력.

## 진도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성황

### 3개 단체 공동 주최...농업 정보 공유·농업인 격려 등



진도군이 최근 진도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제11회 진도군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농업을 싹틔워 미래를 밝힌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농업인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는 진도군4-H연합회와 한국농촌지도자진도군연합회, 한국생활개선진도군연합회 등 3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회원 500명이 참석해 농업 발전의 비전과 화합을 도모했다.

행사는 식전공연과 개회식, 화합 한마당 등으로 진행됐다.

3개 단체 회원들은 결속력을 다지고 농업 정보를 공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의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습단체별 오락 행사와 노래자랑은 참석회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행사장에는 농촌지도 사업과 농특산물 가공 창업교육 성과물 등을 전시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한마음대회는 3개 단체가 지역사회를 이끄는 주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이들 단체가 중심이 돼 농업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목포시, 일회용품 감축 위해 청사에 텀블러 세척기

### 전 직원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관공서도 설치...민원인 참여 유도

목포시가 청사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 청사 본관 1층과 구내식당에 텀블러 자동세척기(사진)를 설치했다.

목포시에 따르면 텀블러 자동세척기는 원터치 버튼 형식으로 친환경세제를 사용해 1개당 45초 이내로 컵과 빨대, 뚜껑 등을 고온 살균 세척한다.

시는 텀블러 세척기 설치로 직원들이 손쉽게 텀블러를 세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회용 컵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일회용품 없는 청사'를 목표로 전 직원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다짐 서약서 작성, 전 부서에 1회용품 줄이기 홍보용 홀더화일 배부, 민원응대용 다회용 컵 제공 등 공직자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시는 향후 직원 만족도 등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텀블러 세척기의 관공서 설치를 확대해 청사 내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 실천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청사 내 텀블러 세척

기 운영으로 탄소중립 실천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